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5808.53	코스닥	1154.00
	(+131.28)		(-6.71)
금리	3.143	환율	1446.60
	(-0.035)		(+1.10)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 10→15%로

美 트럼프 폭주

“대법 반미적 관세 판결에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 현지시간 24일 적용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시장 내 수입제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의 발표다.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내세우고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관련기사 2·3·6면>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썼다.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의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든 무

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발효 시점은 ‘즉시’라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 있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10%가 아닌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절치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관세 시한은 150일로 정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장기로 지속되는 관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대체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李 집권 2년차... 부동산·균형발전 정책 기로

6·3 지방선거 D-100

단순 지역 일꾼 뽑는 것 넘어 1년 국정운영 평가받는 무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6·3 지방선거를 100일(23일 기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무대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6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현재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긋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해야,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탄해진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친다면, 집권 2년차부터 정부 견제론 혹은 심판론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직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 서울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지방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론 지형도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

전인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로 '더블스코어' 차이가났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의 경우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6%로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37%p(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무당층의 시선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외에도 물가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기상번호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서예진 기자 syj@

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자 롯데·CJ

'유럽 시차' 유통가 마케팅 실종 비인기·꾸준한 후원 빛 받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조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유통업계 대목으로 꼽히는 올림픽 특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 기준 새벽 3~4시 암흑 시간대에 집중되며 기업들이 프로모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비인기 종목에 묵묵히 300억 원을 투자해 첫 금메달을 일궈낸 롯데와, 최가온 선수를 향한 후원을 이어온 CJ는 올림픽 마케팅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곳은 24시간 영업을 가능한 편의점 업계 정도에 그쳤다. GS25는 '스포츠 페스타'를 열고 치킨 1+1 행사를 진행했고, CU는 캔맥주 할인과 함께 피겨스케이팅 콘셉트의 곰인형 기획 세트를 내놓으며 집관축을 공략했다.

이처럼 유통가 분위기가 차갑

게 식은 가장 큰 이유는 시차다.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18세 화여고)의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5시경에 열렸고, 혼자 종목인 쇼트트랙의 주요 결승 경기 대다수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편성됐다.

롯데그룹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으로서 2014년부터 10년 넘게 훈련비와 장비비 부담이 큰 설상 종목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각별한 애정이 바탕이 됐다. 특히 신 회장은 2024년 최가온 선수가 허리 부상을 당했을 당시 수술 및 치료비 7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재기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성과를 거뒀다.

최가온 선수가 귀국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보낸 축하 화환과 롯데호텔 선물을 인증하면서 롯데의 후원 스토리는 온라인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메트로 한줄뉴스



▲김용범 “다주택 레버리지 축소·임대공급... 동시에 추진돼야” /사진 뉴시스
▲대통령경호처, '시 기반 위험물 검색'美특허 획득...내년 현장 도입

▲국힘 “‘음주운전’ 산림청장 직권면직...李, 국민 추천제 재검토해야”
▲輿, 의총서 사법개혁·검찰개혁법 최종 논의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목 귀환...유해발굴과 송환 위해 최선”
▲북 당대회 3일째...김정은, “새로운 투쟁전략” 천명

최태원 “HBM 생산량 확대… 영업익 1000억弗 넘을 수도”

(SK회장)

최종현학술원 TPD 행사 참여
AI대전환기 선도적 대응 강조
“한·미·일 협력 통해 해법 찾아야”

“HBM은 가장 진보된 기술이며 우리 회사에 진짜 큰 돈을 벌어드 주는 제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영업익 1000억달러 시대를 전망했다.

HBM은 D램 칩을 쌓아 만든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으로, AI 산업의 핵심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AI 시대 필수 부품으로 꼽힌다. 최 회장이 언급한 괴물칩(monster chip)은 칩 16개를 쌓아 만든 SK하이닉스의 최신 HBM 4세대를 지칭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파시픽 다이얼로그(TPD) 환영사에서 해당 칩을 언급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괴물칩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셀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 및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드 주는 제품”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몬스터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익이

에 대해 “시장의 새로운 전망치는 1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1000억달러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과 마진을 변동성이 워낙 큰 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과제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PD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3국 협력 ▲AI 리더십 경쟁과 산업 변화 ▲금융 질서 재편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긴장 시대의 안보 동맹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한국과 미국·일본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AI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자본과 자원이 있어야 AI 설투션을 확보하고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AI 인프라가 국가와 기업의 금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서 계속

추가 관세부과 조사 필요 구윤철 “국익 중심 대응”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70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성민 기자 kys@

>> 1면 ‘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서 계속

특수보다 선수미래 투자

이어 최 선수는 롯데웰푸드, CJ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스폰서 기업들을 차례로 태그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가온의 ‘감사 인사’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CJ그룹의 후원도 조망받고 있다. 최 선수는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기자회견에서 “CJ 비비고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셔서 캐리어 한 짐 가득 싸서 다니다”며 “외국에서 비비고 한식을 많이 먹어 컨디션 조절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CJ는 2022년 국제스키연맹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23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특히 2024년 최 선수가 부상에 따른 수술과 재활로 강원 동계유스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는 시련을 겪었음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이어갔다.

올림픽 마케팅의 진정한 승자는 단기 특수를 노린 홍보보다 선수 미래를 내다본 오너들의 욕심이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각별한 종목 애정과, ‘기업이 젊은이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후원 철학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美, CTL강관 관세 확정… 현대제철 하락·동국제강 소폭상승

동국제강 2.21%·현대제철 1.31%
낮은 대미 수출… 실적 영향 제한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특정 길이 절단 탄소강관(CTL 강관)에 대한 지난 2023년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관세 부담이 조정됐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이번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관보(2월 20일자)에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 CTL 강관 상계관세율이 동국제강 2.21%, 현대제철 1.31%로 기재됐다. 연방 관보 게재 후 35일이 지나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평가(assessment) 지침을 발행하고, 기존 예치 관세와 최종 관세율 간 차이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결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아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집행정지 신청 기한(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종료 시점까지 정산은 보류될 수 있다. 또한 최종 결과 공표 이후 통관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관세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현금 예치금이 적용되며, 예치율은 별도 변경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전년도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하면 업체별 관세 부담의 방향이 엇갈렸다. 지

난 2022년 최종 관정에서 동국제강은 2.01%, 현대제철은 2.21%였지만, 2023년 관정에서는 동국제강이 2.21%로 소폭 상승한 반면 현대제철은 1.31%로 하락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관세율 조정이 양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 능력은 약 2400만톤이며 실제 생산량은 시황에 따라 약 2000만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연간 약 40만톤으로 전체 생산의 약 2% 수준에 그친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 2023년 기업 분할 이전 통합 기준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은 1%대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전체 수출 구조를 보면 판재류의 대미 수출 비중이 5.8%로, 봉형강류(8.5%)와 강관(59.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책 전문 매체 워런 커뮤니케이션스 뉴스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 CIT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2년 행정심사에서 미 상무부가 한국의 심야 전기요금 할인을 특정 산업 보조금으로 본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상무부가 서로 연관성이 낮은 산업을 묶어 철강 산업이 보조금을 과다수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전기요금 보조금 인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된 다른 연례재심 결과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 대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율 하락이 긍정적 요인이긴 하지만 영향 규모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해은 기자 dhalehdale@

금융당국,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규제강화 검토

주택유형·소재지 세분화 ‘핀셋 대책’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신한·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주택 유형 및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

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대출에 대해 사실상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LTV 0%가 적용된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완 장치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車·반도체·철강’ 부담 지속… 122조 10% 보편관세 재가동

상호관세 15% 위법 판단 ‘제동’
美, 122조 10% 한시관세로 대체
車·철강 232조 품목관세 부담 여전
반도체도 품목관세·현지생산 압박
301조 조사 등 통상 불확실성 확대



경기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기존 관세 체계에 묶여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정부와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오는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추진된 대체 관세 성격의 조치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이다.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반도체·화학’은 여전히 고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다만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를 폐지하고 모두 25% 관세로 통일했다가, 6월 4일 이를 50%로 인상했다.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 철강과 가전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8~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10% 보편관세 부가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하는 등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122조는 국제지불 불균형 해소를 명

분으로 내세운 10% 글로벌 관세 형태를 갖고 있다. 결국 조항만 바뀌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은 유지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추후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에 이를 근거로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압박이 실제로 더 크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얽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대미투자 협의 지속”… 관세는 ‘투트랙’ 대응

상호관세 위법에도 투자협력 지속
美, 122조 15% 즉시, 301조 카드 예고
車·철강 품목관세 판결과 무관 유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협의는 예정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재부와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관세 위법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가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망·투자 협력은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

고 있어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 숨 고르기일 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관세 협상과 별도로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동맹은 강화한다

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품목의 채산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관세 표적이 될 경우 업종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즉시 적용하고, 향후 수개월 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미측의 추가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해 주력할 방침이다.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관세 ‘법적 공방’에 시장 흔들… 환율·채권·금 촉각

판결 뒤 관세정책 재가동, 불확실성 확대
150일 한시·의회 변수, 지속성 불투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응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에 15%의 관세를 재부과해 ‘관세 무기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호무역 중심의 ‘관세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 ‘상호관세’ 무효…트럼프 ‘새 관세’ 부과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웬타일 관세’ 부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했으며, 판결에 참여한

9명의 판사 가운데 6명이 ‘위법’, 3명이 ‘합법’으로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불균형 극복 및 정부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을 둔 개별관세로 구성됐다. 트럼프는 각국과의 외교에 관세를 적극 활용했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협상을 거쳐 15% 수준의 관세를 결정할 바 있다.

판결에 따라 각국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위법성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종전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에는 관세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대통령 권한으로 최장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 불확실성 확산…환율·금융시장 촉각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환율,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이번 관세는 최장 150일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관세 지속을 위해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관세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은 연방정부가 그간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

BP)이 작년 말까지 부과한 관세액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현재까지 관세액은 약 1750억달러(254조원)로 추산된다.

연방정부의 재정 우려도 불거졌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을 비롯해 감세안을 다수 추진했다. 관세 수입이 사라진다면 연방 정부의 적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달러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고, 달러당 1449원 수준에 시작했던 뉴욕시장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44.50원까지 하락했다.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09%, 30년물이 4.73%를 각각 기록하며 전일보다 상승(채권값 하락) 마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 금 가격은 1.67% 올라 트로이온스당 5080.90달러(4월물 기준)를 기록했다.

◆ 관세전쟁 새 국면…큰 변화 없을 듯

미국과 세계 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별 관세가 최대 15%(품목별 관세 제외)로 제한됐고, 관세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져서다. 특히 무역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주요국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만 주요국들은 기존 협상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150일 이후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앞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일본은 상호관세 판결 이후에도 투자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무역협상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데, 수출·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협상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도 각국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피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기존 일정대로 내달 5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개인연금 세제 '고소득층 편중' 지적... 면세자 중심 개편 필요

적격연금 활성화 정책, 고소득 중심 절세효과 없는 면세자는 수혜 배제
연금보험, 고소득층 절세수단 인식
비과세 요건 강화 후 가입 유인 하락
단순 공제 확대보다 구조개편 방점



개인연금 세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개인연금 이미지.

현행 개인연금 세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효과에 치우쳐 면세자·전업주부·퇴직 전 50대 등 노후준비 취약층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을 따로 보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화 유인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IRP(세제적격연금)와, 수령 단계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지만, 두 축 모두 제도개편 과정에서 가입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문제의식은 '사각지대'다. 보험 연구원이 발표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연금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명)는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세자에게도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은 고소득층 절세수단이라는 인식 속에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유인이 약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연금저축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공제한도가

확대됐음에도 가입률(수입보험료)이 2013년 14.8%(8조9000억원)에서 2022년 9.9%(5조4000억원)로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율(16.5%) 자체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금보험 쪽도 위축 흐름이 확인된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월 150만원 한도 등) 이후 세제혜택 축소가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면서 일반연금은 2013년 2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변액연금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적격·비적격연금 모두에서 '가입(적립)→유지→연금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공제 확대보다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제(예: 3~5년)',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재적립하는 '연금계좌환류제'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자·전업주부 등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에는 납입액 비례의 매칭형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

금을 도입하고,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는 추가 세액공제 또는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적격연금(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고액 절세 차단'과 '취약계층 지원'의 분리 접근을 주문했다. 고액 자산가의 절세수단 활용은 규제하되,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산층·50대에는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를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공제율 축소·세부담 강화와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를 결합한 '탄력적 연금과세' 검토도 제안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재분배하고, 노후자산 축적 기회 제고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발적 노후준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外人, 코스피 9조 매도하고 '원전·조선株'로 다시 채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
코스피 하락 베팅 아닌 리밸런싱 과정
두산에너지·한화오션·삼성중매수
기업 수익성·밸류에이션 고려해야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한 지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 증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677.25)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 한국 주식을 9조원 넘게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원전과 조선 관련주를 끌어다 샀다. 외국인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5종목 중 3개가 원전 및 조선 관련주일 정도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비우고 그 자리에 이들을 담는 모양새다.

◆ 외국인 9조 팔았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9조156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외국인의 지난해 연간 코스피 순매도액(4조6550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선물시장에서도 올해 들어 3조797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38%

급등하며 고공행진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9조5540억원), SK하이닉스(-5조9720억원) 등 반도체 쌍두마차였다. 그 자리에 외국인은 원전과 조선주들을 채웠다. 두산에너지(1조2910억원)를 비롯해 한화오션(8180억원), 삼성중공업(5630억) 등 3종목을 2조6000억원 넘게 샀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

중 셀트리온과 에이피알을 빼면 모두 원전과 조선관련 종목이다. 지난해 외국인 이 반도체·전력·조선·전기 등을 골고루 산 것과 대비되는 '편식'이다. 외국인이 최근 원전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대형원전 건설

에 소극적"이라며 "과거 보금3·4호기 실패 경험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자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을 승인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한국과 경쟁할 만한 국가는 없다"며 "미국 유틸리티 기업과 한국전력의 컨소시엄, 일본정부의 금전적 투자와 한국 원자력 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다. 조선주는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해양 행동 계획'에 따라 한미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 ◆ 묻지마 외국인 추종은 낭패
지금 원전주와 조선주를 사는 건 어렵다. 전문가 사이에선 선별 투자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스피 추세적 하락에 대한 '베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매도 대부분이 반도체 주로 집중된 점을 볼 때 많이 오른 종목 비중을 줄이는 단기적인 리밸런싱(재조정)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2배에 접근 중인데,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2007~2008년 이후 처음"이라며 "저평가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상승에 한계가 드러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점차 기업들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동시에 고려할 시점"이라며 "반도체·조선은 수익성은 높지만, 자산 가치 기준 밸류에이션은 크게 싸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따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상승을 보충해주지 않아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매수·매도 종목은 투자 때 참고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AI 호실적' 삼성전기·LG이노텍... 차기 성장축으로 유리기관·로봇 낙점

LG이노텍, 아이폰 17 카메라 모듈 공급
삼성전기, MLCC·FC-BGA 확대
Si반도체·로봇으로 사업체질 전환

◆ AI·전장 수요가 이끈 호실적... 수익성 개선 본격화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 6098억원, 영업이익 32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8%, 영업이익은 31%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기 또한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 9021억원과 영업이익 2395억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108% 대폭 증가했다. LG이노텍 호실적의 배경에는 핵심 고객사인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있다. 애플에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최대 협력사로 최신 아이폰

17시리즈 전 라인업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LG이노텍의 패키징솔루션 사업 또한 메모리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 궤도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기 역시 AI·전장·서버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AI·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및 AI가속기용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공급을 확대해 수익성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MLCC와 FC-BGA는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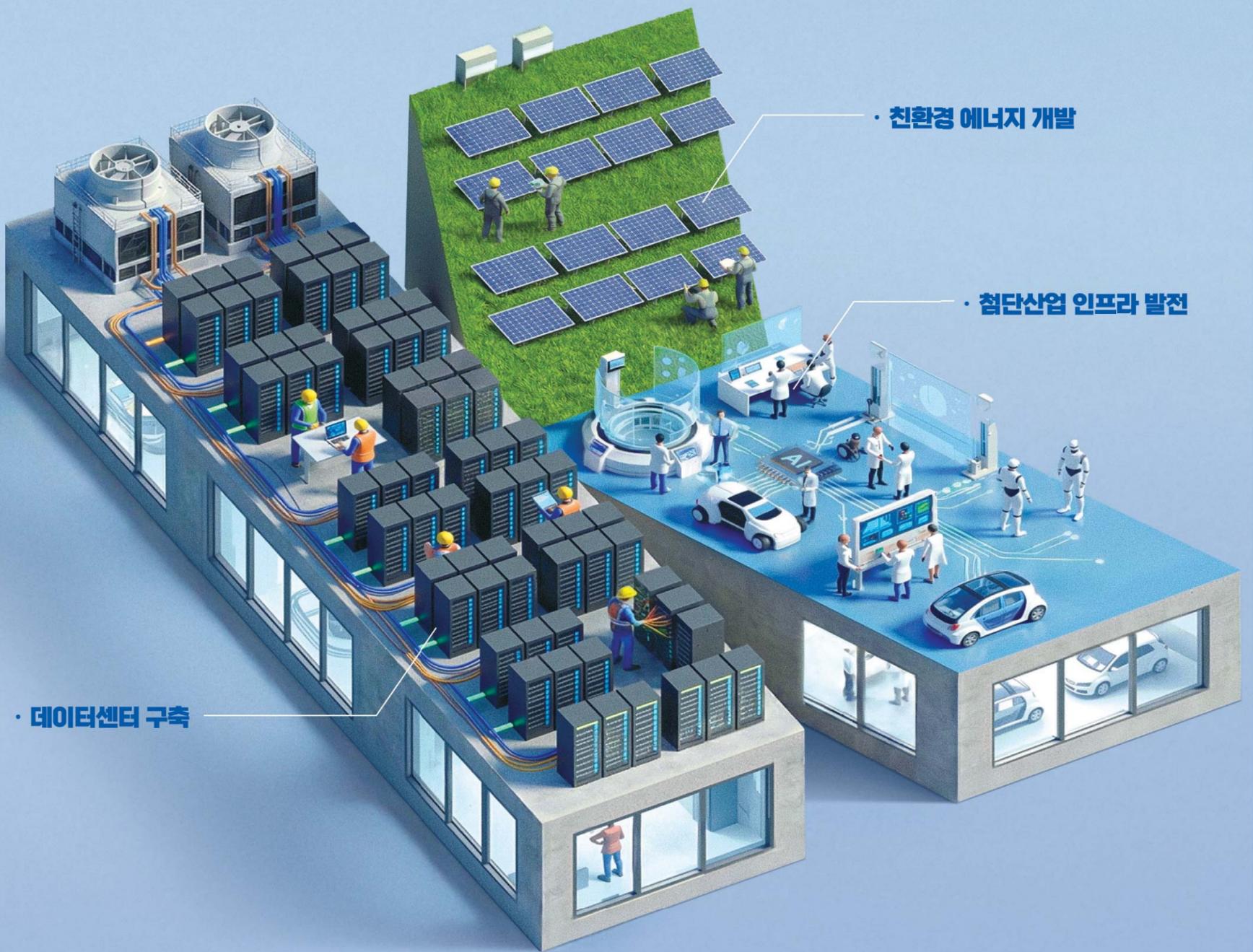
로 칩 주변 전력망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 스마트폰 넘어 유리기관·로봇으로 수익원 다변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AI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유리기관 사업에도 본격 뛰어들며 올해 사업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기관은 기존 플라스틱 기관과 달리 기관 내부 코어 층을 유리로 대체한 차세대 기관이다. 휨 현상이 적고 미세 회로 구현이 쉬워 향후 AI반도체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유리기관 핵심 소재인 '글라

스 코어'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JV)설립에 나섰다. 회사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조기 양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LG이노텍은 구미 공장에 유리기관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해 2027~2028년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과 시제품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다. 양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를 염두에 두고 로봇용 차기 성장축으로 삼는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MLCC가 1만개 이상, 카메라 모듈이 최소 5개 이상 필요할 정도로 부품 사용량이 많다. 여기에 AI 서버와 마찬가지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공급처가 제한적인 점도 부품사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한다. /서현정 기자 hyeon@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시대전환을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산업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 데이터센터개발펀드 · 탄소중립태양광펀드 · 인프라개발펀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민주 “윤석열 키즈 퇴출” vs 국힘 “현역 프리패스 없다”

6·3 지방선거 D-100

정권 초 치른 선거, 여당에게 유리 민주, 국정지지도 기반 정권 지원론 국힘,李 정권 견제론에 당력 집중

23일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 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興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값이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아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용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집값 안정”

국민의힘의 비판에 SNS 통해 반박 “매매시장 매출 늘어 전·월세가 안정 비정상적 정상화, 정부의 필생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역지 주장”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서 것은 야당의 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2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야당을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 공급이 늘어나니 실거주 목적의 매수로 이어지며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교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적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공공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

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꾸준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은, 시장에 정책 방향을 알려주려는 취지인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는 곧바로 후속 조치가 따르기에,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보기 전에 정책의 반대 논리가 퍼지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준 것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다”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에 관련해 SNS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트럼프 15% 관세 발동… 청와대 ‘신중모드’

美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무역법 122조 인용·반박 靑, 불확실성 높아 기존 기조 유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통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여전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위성락 국가안

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및 품목관세 등이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에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대응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관세가 단순히 경제분야로 국한될 수 없다는 지점도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저농축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등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다. 통상·안보 사안을 함께 협상했기 때문에, 관세 대응을 손쉽게 바꿀 경우 핵잠 등 안보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예진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가장 가깝고 든든한 은행

전국 어디서나 가깝고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은행

전국 최다 영업점과
인정받은 신용으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시작이 다른 은행
NH농협은행

운중도를 지키는 유일한 은행?

농협은행은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064개 영업점으로 지역 사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5대 시중은행 기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인증 초우량 은행

Aa3
MOODY'S

AAA
KR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100% 대내 자본

100% 대내 자본

100% 대내 자본

시작이 다른 은행



▶ 더 알아보기



NH농협은행은 금융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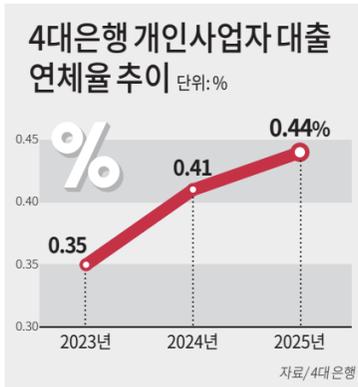
연체액 2년새 26% ↑... 개인사업자, 이자부담 더 커진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잔액 267조 중 연체액 1.2조, 연체율 0.44% 집계 3高 장기화에 내수경기 부진 영향 대출심사 강화에 자금조달 어려워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액이 최근 2년새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금리 또한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6조 923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연체액은 1조 1618억원으로 연체율은 0.44%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4년 말 0.41%에서 0.44%로 0.03% 포인트(P) 올랐다. 2년 전(0.35%)과 비교하면 0.09%P 상승했다.

2023년 말 266조 185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까지 늘어

나서 동안 연체액이 9221억원에서 1조 1618억원으로 26%가량 급증한 결과다.

연체율이 오르는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현상이 장기화된 데다 내수경기까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업환경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5 보증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2.4%가 2024년에 비해 2025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7점 척도)으로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5.9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물가 상승(5.86점)', '판매·매출

감소(5.58점)' 순이었다.

여기에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로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차환이나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연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금리는 4.55~6.18%였다. 지난해 10월 4.41~5.8%와 비교하면 3개월 새 하단이 0.14%p, 상단은 0.38%p 올랐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영환경과 자금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대비 올해 자금 사정도 '악화'를 예상한 개인사업자는 57.2%

로 가장 높았고, '동일(28.7%)', '유행(1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자금 사정 전망 점수는 3점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자금 사정 악화 이유(7점 척도) 역시 '경제 불확실성 증가'가 6.02점으로 가장 컸고, '물가 상승(5.93점)', '금융 비용 증가(5.68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까지 늘어나면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신세계百貨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신한카드는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제휴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 결제 건에 대해 최대 7% 신세계백화점 포인트(이하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70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은 금액은 신세계백화점 점포별로 상이하다.

제휴카드로 결제 시 신백리워드 쿠폰 팩도 제공한다. ▲위치·주얼리 브랜드 3만원 할인권 ▲패션 브랜드 3만원 할인권 ▲리빙 브랜드 3만원 할인권이 포함된 쿠폰팩을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급한다. 단일 브랜드에서 최소 금액 이상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다.

신세계 신한카드 베스트 핏(Best Fit), 신세계 신한카드 계열 등 신세계백화점 제휴 신한카드는 모두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3%대 회복 '자금유치 올인'

안양·SBI·애뮤온 등 3%대 금리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탈 방어 나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12개월물)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수신고가 줄어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12개월 기준)는 3.02%다. 지난해 말 2%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12일 3%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대표적인 저축은행인 고금리 정기예금으로는 안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 최고 3.50%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다. 예치금액은 1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SBI저축은행 역시 최고 연 3.30%의 예금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최고 3.30% 금리를 제공하는 애뮤온저축은행의 '처음만남예금', 최고 3.26%의 머스트샵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e-회전식정기예금' 상품 등이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분류된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축소해 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중금리대출까지 축소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3조 3785억원으로, 상반기(5조 4891억원)보다 2조 1106억원(38.5%) 줄어 들었다.

대출 조이는 수신 규모 축소로 이

어졌다. 대출 규모 축소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강화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말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소극적인 수신 영업 활동을 지속해 왔다.

업계에서는 다시 예금금리가 오른 것을 두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올해 처음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 불장이 지속되자, 은행 예금을 이용해 자산을 운용하기보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수신고가 99조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를 하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 조이기, 증시

활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외형이 축소되자 예금 금리를 올려 기존 고객 방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공격적인 수신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 규제에 따른 대출 규모의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활황으로 주식시장으로 고객 자금이 빠지자 1은행권,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고객 잡기에 나서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신 확대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금융, 청년 스타트업 발굴·육성 나서

찾아가는 KB스타터스 설명회 개최 서울대 시작으로 주요대 순차적 진행

KB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창업 중심의 일자리 혁신으로 성장의 온기를 중소기업·지방·청년까지 확산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 '찾아가는 KB스타터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B스타터스는 2015년부터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정부·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인재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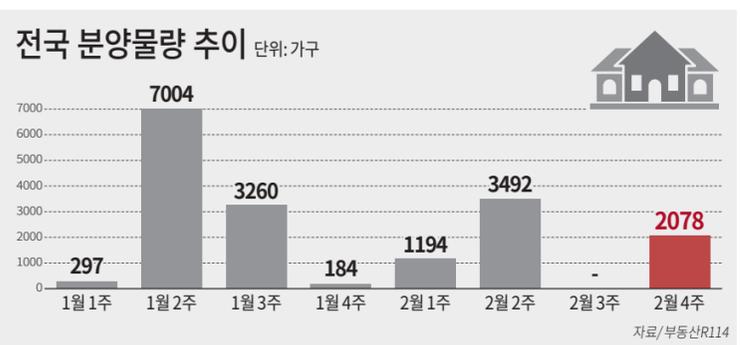
설명회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참석 대상은 대학(원)생 창업자, 교내 창업 동아리, 그리고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등이며,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KB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 소개

▲KB금융 계열사와의 주요 협업 사례 공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질의응답(Q&A) 등 'KB스타터스' 지원을 위해 창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KB금융은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상반기 KB스타터스' 모집 기간에 맞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이번 서울 주요 대학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방 거점 대학으로 설명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KB금융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학교·청년 창업 생태계는 미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열정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들이 KB금융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4개 단지 분양

분양 캘린더

총 2078가구 중 605가구 일반분양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05가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과 경기 양주시 삼성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일

원에서 괴안3D구역을 재개발한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역세권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와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 서북구 성성동 60·9번지(5단지), 39·7번지(6단지)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올 유 니드' 광고 공개

KB국민카드가 '올 유 니드(ALL YOU NEED)' 광고 캠페인의 상품편 광고 영상 세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로 발탁된 배우 김우빈이 스포츠 경기를 직접 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브랜드 론칭편에서 제시된 '국가대표의 세 가지 킷'을 바탕으로, 각 카드의 혜택을 스포츠 경기 상황에 빚대어 표현했다.

'KB 올(ALL) 카드' 광고에서는 국내 가맹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의 특성을 반영해, 김우빈이 농구 경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는 올라운드 선수로 등장한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경기를 이끄는 모습은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올 카드의 '국가대표급 커버력'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2일 "상품편 광고는 카드별 혜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라는 장치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LG전자, 사우스지역 매출 증가 인프라 구축 등 사업 확장 ‘탄력’

편중된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국가별 전용가전 통해 경쟁력 확보
브라질 신공장 건설 2억달러 투입

LG전자가 2030년까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매출액 2배 성장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지역 특화 및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대표 국가로 꼽히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6조 20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3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들 국가에서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매출 성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류재철 CEO 역시 지난해 말 취임 첫 구성원 대상 메시지에서 이러한 목표를 공언한 바 있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을 극대화해 전사 중장기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 편중된 지역 포트폴리오를 건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브라질은 세계 11위 규모 경제력에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구매력이 높아

지고 있다. LG전자는 브라질에서 현지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본격 시장 공략 준비에 나섰다. 최대 인구 대국 인도는 LG전자가 주요 가전 점유율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가전 보급률이 20~30%에 불과해 추가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기반 국가 주도 정책 및 개발프로젝트에 연계한 B2G(기업·정부간거래), B2B(기업간거래) 기회가 많다.

LG전자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대지면적 76만7000제곱미터(㎡), 연면적 7만제곱미터 규모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신공장은 프리미엄 및 지역 적합형 제품 생산을 맡는다. 현지 가전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인근 국가로의 수출 물량을 생산하는 등 남미 가전시장 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건설중인 파라나주 신공장과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에 위치한 기존 생산기지를 더하면 LG전자의 브라질 내 프리미엄 가전 및 부품 현지 생산능력은 연간 72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LG전자는 최근 인도에서 현지 고객

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구매력 등을 감안해 기획한 인도 전용 가전 ‘에센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에센셜 시리즈는 인도 젊은 중산층 가구로부터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구성됐다.

인도 전용 세탁기는 수압이 낮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수(硬水, 센물) 전용 세척기능도 탑재했다. 에어컨은 최대 5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혹독한 현지 여름 날씨에도 강력한 냉방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냉장고는 종교적 이유로 채식인구가 많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신선칸 용량을 대폭 늘렸다. 제품 외관에는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 반짝이는 꽃무늬 디자인을 적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 1995년 최대 가전 유통회사 사커와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현지에 진출해 30여년에 걸친 견고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사는 혹서지 환경에 최적의 효율을 내는 HVAC 기술 등 지역 특화 기술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GMC 아카디아(앞쪽)&캐니언.

드날리 라인업 전면... 프리미엄 기준 제시

YG의 CAR TALK

GM ‘GMC 브랜드’

아카디아, ‘진정한 7인승’ 공간 구현
캐니언, 120년 픽업 헤리티지 담아

브랜드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는 신뢰로 남는다.

제너럴모터스(GM)의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 브랜드 GMC는 후자다. 1902년 첫 바퀴를 굴린 이래 120여년, 오랜 헤리티지와 자신감을 쌓아온 GMC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브랜드데이에서 본격 한국 진출을 선언하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고객들에게 120년 브랜드의 진가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MC가 내세운 전략은 명료하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 다양한 트림이 아닌, 가장 정제된 최상위 드날리 라인업만을 한국에 선보이겠다는 결정이 그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프로페셔널 그레이드’라는 브랜드 슬로건은 화려함보다 본질, 과시보다 신뢰, 유행보다 헤리티지 즉, GMC가 120년 동안 고수해 온 가치 체계다.

이날 국내에 공개한 주요 모델에서도 이같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카디아는 ‘진정한 7인승’ 차량의 압도적인 여유와 지능을 느낄 수 있다. 아카디아는 북미 시장에서 3세대

에 걸쳐 진화하며 고객의 선택을 받아온 검증된 모델로, 국내에는 최상위 트림인 드날리 얼티미트 단일 구성으로 출시되어 GMC가 지향하는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2:2:3 시트 배열을 갖춘 이 정통 7인승 대형 SUV는 성인 남성도 장시간 편안한 3열 거주성(헤드룸 979mm, 레그룸 816mm)과 시트를 모두 접을 시 최대 2758L에 달하는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확보해 차원이 다른 진짜 7인승 공간을 구현했다.

캐니언은 GMC의 120년의 전문 엔지니어링 노하우로 완성된 프리미엄 중형 픽업으로,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픽업 트럭은 투박하다는 편견은 캐니언 앞에서 무너진다. GMC 120년 픽업 헤리티지의 결정체인 캐니언은 풀사이즈 픽업 실버라도를 통해 검증된 2.7L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54kg·m를 발휘하며, 3493kg에 달하는 견인력과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중형 픽업의 한계를 넘어선다.

아카디아와 캐니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GMC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프로페셔널 그레이드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딜락과 통합된 전국 단위의 검증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차를 소유하는 모든 순간을 드날리급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

배터리업계, 전고체 중심 중장기전략 재정비

삼성SDI 시제품 검증, 투자재원 마련
LG엔솔 EV·로봇 등 상용화 목표 제시
SK은 솔리드파워 협력 등 개발 속도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개된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목업.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업황 둔화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고체 배터리를 축으로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세대 기술 투자를 지속, 2030년 전후 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은은 전고체 배터리를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양산 준비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SDI는 2023년 수원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설치하고 시제품 생산에 착수했다.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해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 작업도 동시

에 추진하고 있다.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15.2%를 매각해 최대 10조 원대 자금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는 시설투자(CAPEX) 규모를 전년 대비 소폭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9년까지 전기차(EV)용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식전극 공법을 통해 설비 투자비와 공정 비용을 낮추며 양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SK은은도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미래기술원 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개발 중이다. 솔리드파워와 협력, 셀 설계 및 공정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술 완성도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량 생산과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양산형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차세대 갤럭시 디바이스 ‘퍼플렉시티’ 탑재

삼성전자 다양한 AI 에이전트 제공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고 22일 밝

혔다.

사용자는 퍼플렉시티 AI 에이전트를 통해 삼성 노트, 갤럭시, 리마인더 등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도, 음성 명령어로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음성 명령어 ‘헤이 플렉스’로 AI 에이전트를 호출한 후, “2월 26일 오전 3시에 갤럭시 연팩 2026 시청하게 리마인더에 등록해줘”라

고 말하면 리마인더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 운영책임자(COO) 최원준 사장은 “삼성전자는 개방형 협업을 바탕으로 갤럭시 기기의 AI 경험을 확대하고 AI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었을 뿐 아니라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통합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함으로써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더 쉽고 편리한 맞춤형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美 주택단지에 ‘데이코’ 가전 공급

데이코 라인업 통해 B2B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 전 세대에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랜드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 단지에 적용되는 데이코 가전은 ▲1도어 컬럼 냉장·냉동고 ▲풀컬럼 와인셀러 ▲식기세척기 ▲48형 듀얼 스팀 레인지 ▲프로 캐노피 월 후드 등 총 6종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데이코 등 B2B 가전을 적극 공급하며,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기업 간 거래(B2B)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플로리다 지역 내 신뢰받는 ‘파크 스퀘어 홈즈’, ‘존스 홈즈’가 공급하는 단독 주택에도 데이코 가전을 공급 예정이다.



삼성전자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이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에 공급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DA사업부 이상직 부사장은 “아리페카에 데이코를 공급하게 된 것은 북미시장에서 삼성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스마트싱스를 통한 연결성까지 두루 갖춘 데이코 라인업을 통해 북미 B2B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휴롬 “채소·과일은 손쉬운 건강 무기”… 암 예방 식탁 제안

대한암예방학회와 ‘암 예방 식탁’ 발간 식습관-암 예방 영향, 근거로 정리 “채소·과일 섭취 늘릴 실천형 안내서” 70여 레시피·체크리스트 등 수록 LG화학과 친환경 착즙기 선보여 엠베서더 전현무와 건강 캠페인

‘채소와 과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이며 손쉬운 무기입니다.’

‘K-착즙기’의 대명사인 휴롬이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제품 판매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새해에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다.

22일 휴롬에 따르면 대한암예방학회와 함께 “암 예방은 특별한 치료 이전에,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새 책 ‘채소와 과일로 차리는 암 예방 식탁’을 최근 펴냈다.

휴롬은 지난해 3월 암 예방의 날에 대한암예방학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채소·과일 섭취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통계에 따르면 채소·과일을 하루 500g 이상 섭취하는 국민은 2016년 당시 33.1%에서 2023년에는 22.1%로 크게 줄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은 260g, 과일 섭취량은 128g에 불과하다.



휴롬이 LG화학과 손잡고 선보인 H310 친환경 착즙기.

특히 김치를 제외하면 하루 채소 섭취량은 182g으로 더욱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청소년은 1.4%에 그치고 있다. 거의 먹지 않고 있는 청소년은 79.5%나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식탁에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WHO, 세계암연구기금(WC RF), 국립암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자료와 국내외 통계를 토대로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습관이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실천형 안내서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데이터로 살펴본 한국인의 채소·과일 섭취 이야기 ▲건강을 위한 신선한 채소·과일 섭취 요령 ▲어린이, 어른 등 연령대별 채소·과일 섭취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70여 종의 레시피, 국민 암 예방 수칙 10, 하루 채소·과일 섭취 체크리스트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휴롬 관계자는 “대한암예방학회 권장 서적이기도 한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 예방을 위한 실천적 생활 지침을 제공해 국민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가에 기



휴롬이 대한암예방학회와 펴낸 ‘채소와 과일로 차리는 암 예방 식탁’.

여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특히 채소와 과일 섭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휴롬은 최근 LG화학의 손잡고 최초로 친환경 착즙기 H310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휴롬이 LG화학으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선별 추출해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새 제품과 동등한 내충격성·내열성·가공성을 구현한 친환경 소재인 PCR ABS(고부가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만들었다.

휴롬은 또 방송인 전현무를 2026년 엠베서더로 발탁해 건강 캠페인도 적극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에이스침대

TPU 코팅 방수커버 출시

땀·소변 등 액체 효과적으로 막아

에이스침대가 웰크론과 협력해 기존 마이크로케어 제품에 매트리스 보호 및 알러지 케어 기능을 더한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를 출시했다.

22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는 원단 표면에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코팅 기술을 적용해 물·땀·소변 등 액체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내수압 2000mm 이상의 방수 성능으로 매트리스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수면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의 사람이나 생활 오염 노출이 잦은 영유아 가정 등에서 매트리스의 오염과 변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제품 본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준다.

/김승호 기자

한샘

‘스위브 더마스터’ 선보

이태리 황소가죽 ‘올 레더’ 스윙소파

한샘이 이태리 명품 가죽의 차별화된 품질과 자유로운 공간 활용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파 ‘스위브 더마스터’를 출시했다.

22일 한샘에 따르면 신제품은 한샘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의 가죽 스윙소파로, 제품명인 ‘더마스터’에 걸맞게 소재부터 디자인, 기능까지 소파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렸다.

이태리 명가 펠레밀라노(Pelle Milano)사의 1.6~1.8mm 황소가죽을 사용해 천연 소재 고유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구현했다. 특히, 전체 가죽으로 마감하는 ‘올 레더(All-leather)’ 사양으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완성도 높은 마감과 탄탄한 내구성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LG AI연구원, 3연속 ‘AI 정상회의’ 초청

인도서 AI 위험분류 ‘KAUT’ 공개 4대 영역·226항목 기준 등 제시

LG AI연구원이 서울과 파리에 이어 올해 인도까지 3차례 연속 ‘AI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국내 AI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인도 AI 정상회의’에 참가해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과 실행 성과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이날 LG AI연구원이 개발한 범용 AI 위험분류체계 한국판(KAUT)을 공개했다.

김 부문장은 “LG가 개발한 AI 위험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동 주관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LG

분류체계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본 토대로 설계하면서도 보편적 원칙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과 멀티 AI 에이전트의 담합, AI 안전장치 우회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범용 AI 위험분류체계 한국판은 잠재적 위험을 ▲인류 보편적 가치 ▲사회 안전 ▲한국적 특수성 ▲미래 위험 등 4개 핵심 영역, 226개 세부 위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5가지 구체

/차현정 기자 hyeon@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AX 본격화

중기중앙회, 2년 870억 투입 안전·공정·경영·체감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

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전과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규모는 올해(645억원)부터 내년(225억원)까지 총 870억원으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AI 기술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두 가지로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은 중소기업이 실제 공정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직접 해결하는 과제로 꾸민다.

‘지역산업 육성 유형’은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협력업체와 동일 업종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적 편별 기준이 있어 하나의 위반 사항만 발생해도 AI가 부적절한 응답을 했다고 분류한다.

LG AI연구원은 오는 5월 글로벌 공개를 앞둔 ‘AI 윤리 MOOC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 세계 AI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분야의 AI 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렀던 AI 윤리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LG AI연구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윤리영향평가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AI 에이전트 등 실천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타이어

장기 PPA로 탄소 줄인다

헝가리공장, 10년 430GWh 계약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올해 유럽 헝가리 공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 한국타이어는 헝가리공장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골드픽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PC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한국타이어는 GPC로부터 매년 43GWh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는 약 2만 8700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SK telecom 폴스택 AI kt 현장 즉시투입 LGU+ 고객경험·보안

이통3사 MWC26 출격

SKT 국내 첫 519B 규모 'A.X K1' 실제 추론 성능·비용 효율성 관건

KT '실질적 도구'로서의 AI 제안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 핵심

LGU+ '익시오'로 밀착 AI 서비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 주목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6’은 한국 통신 3사가 더 이상 ‘통신’이라는 구태의연한 껍데기에 머물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망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우고,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인공지능으로 재편한 ‘AI 컴퍼니’로서의 실질적 생존 능력을 검증받는다. 내수 시장의 포화와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이 꺼내 든 카드는 ‘소버린 AI(AI 주권)’와 ‘실용형 에이전트’로 요약된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하는 MWC 2026에 통신 3사가 모두 출전에 기술을 뽐낸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단순히 모델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AI 데이터센터(D



SK텔레콤 MWC26 전시관 이미지.



/SKT MWC26 KT부스 조감도.



/KT MWC26 LG유플러스 전시관 조감도.

/LG유플러스

C)부터 초거대 모델,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한 ‘폴스택 AI’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국내 최초 519B(5190억 개)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의 현장 시연이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이 모델은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아키텍처와 학습 로그를 가진 모델이 실제 어느 정도의 추론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SKT는 울산 AI DC 유치와 고성능 GPU 클러스터 ‘해인’ 구축으로 쌓은 하드웨어 운영 노하우를 공개하며, AI를 돌리기 위한 ‘그릇’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엔비디아의 B200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과 추론 중심의 ‘AI 인프라 팩토리’는 AI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질적 인프라로

안착했음을 선포하는 대목이다.

KT는 기술의 거장함보다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적 도구’로서의 AI를 제안한다. ‘평화문광장’을 테마로 꾸민 전시관은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AI를 업무에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담고 있다.

핵심은 엔터프라이즈 AI 운영체제인 ‘에이전틱 패브릭(Agentic Fabric)’이다. 이는 기업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산업별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C’와 비전 AI 기술은 KT가 타깃으로 삼는 AX(인공지능 전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상생 협력 부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의 연대를 강조한 점 역시, 혼자 가

닌 생태계 전체를 끌고 나가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성능 경쟁이 아닌 ‘고객 경험’과 ‘보안’이라는 감성적·윤리적 측면을 파고든다. 홍범식 CEO가 LG그룹 경영진 중 최초로 MWC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것은 그만큼 이번 전시에 역할을 걸었다는 방증이다.

홍 CEO가 강조할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는 AI가 기술적 성취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연결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집중한다. 온디바이스 AI 폴 에이전트 ‘익시오(IXI-O)’는 보이스피싱 탐지와 실시간 통화 요약 등 사용자에게 가장 밀착된 통신 서비스를 AI로 혁신한 사례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주관의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다. 자체 모델 ‘익시젠(IXI-GEN)’의 취약점을 글로벌 전

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겠다는 것은,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보안 솔루션 ‘익시가디언 2.0’을 필두로 한 신뢰 마케팅은 기술 격차를 넘어선 사용자 안심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MWC26에서 확인된 통신 3사의 전략은 각기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 글로벌 빅테크의 거센 파고 속에서 한국만의 ‘AI 주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통신사들이 덤 파이프(Dump Pipe, 단순 망 제공자)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AI 지형을 바꾸는 ‘인텔리전스 사업자’로 거듭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국가대표 AI’ 마지막 정예팀 합류

트릴리온랩스와 초접전 끝 판정승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험 증명 제한된 환경서 세계적 수준 성능 보여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빈자리를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으로 채우며 4차전 대진표를 완성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자체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내재화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모티프테크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에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모레, 클라우드웍스, 엔닷라이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일회계법인, 국가유산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모티프테크는 트릴리온랩스와 초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뒀다. 모티프테크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비디오 영역까지 아우르는 독자 모델 개발 경험을 증명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와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설계로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낸 점이 주요했다.

함께 경쟁했던 트릴리온랩스 역시

12.7B 모델 등으로 기술력을 입증했으나 근소한 점수 차로 고배를 마셨다.

평가위원들은 “(모티프테크는) 다수의 핵심 모듈을 자체적으로 제안하고 구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및 비디오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온 점에서 기술적 내재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프롬프트 크래치(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의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독자성을 ‘초기 데이터 로그 보유 및 자체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규정했

다. 즉, 모델 개발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고 오류 발생 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뿌리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7월 말 개발 완료 시점에 맞춰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의해 더 세분화된 독자성 기준을 확정해 하반기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모티프테크 정예팀은 앞으로 6개월간 300B(3000억 개) 파라미터급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시작으로 시각언어모델(VLM), 물리적 행동 지시가 가능한 시각언어행동모델(VLA)까지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특히 모델 가중치와 코드, 연산 최적화 라이브러리 등 전 영

역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정부는 이들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200 768장과 1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구매 비용 등 기존 팀과 동등한 인프라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는 오는 8월 초에 열릴 2차 단계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존 3개 팀과 이번엔 합류한 모티프테크는 각각 6개월의 개발 기간을 보장받은 뒤, 실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장성을 두고 격돌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실장(사진)은 “독파모 사업을 통해 개발된 독자 모델들이 공공·산업 분야의 AI에 원활히 적용되고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와 GPU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KT-삼성전자,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검증

6G 시대 대비 핵심 기술 검증 일환 7GHz 대역서 진행... 집적도 크게 향상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7GHz 대역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무선 시스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며, 6G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 검증의 일환이다.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은 다수의 안테나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 신호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검증은 6G 핵심 후보 주

파수 중 하나인 7GHz 대역에서 진행했다. 검증 결과, 기존 5G 장비 대비 안테나 집적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5G 기지국 장비인 64TRx와 비교해 집적도가 약 4배 높아 동일 공간에서 더 많은 안테나와 빔 구현이 가능했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성능 확보가 어렵던 기존 한계를 개선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량 전송 시험에서는 다운로드 속도 3.0Gbps를 기록했다. 기지국에서 단말로 8개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6G 서비스에 요구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 가능성을 확인했다. 해

당 시험은 키사이트 통신솔루션 그룹의 시험용 6G 단말기를 활용해 진행됐다.

KT와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이 XR, 메타버스, 홀로그램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 기반 AI 애플리케이션 등 6G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대역폭·저지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향후 상향링크 커버리지 개선,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무선 시스템 고도화, AI-RAN과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6G 표준화 협력 등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키사이트통신솔루션 그룹은 신규 주파수 활용과 시험 환경 제공을 통해 초기 6G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APEC 교통지원 공로 인정

외교부 장관 표창·경북도지사 감사패

카카오모빌리티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기간 교통분야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송도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3)와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분회의 기간에 맞춰 온·오프라인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원했다.

주요 행사 구간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해 각국 대표단과 관계자의 이동을 지원했고,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26개 노선의 임시 우회 노선 정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줄였다. 행사장 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과 탑승 정보를 앱으로 안내해 방문객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로로 외교부 장관 표창과 함께 경북도지사 감사패도 수상했다.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교통 운영을 지원한 사례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국가 단위 행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

오천피 훈풍에 공모주 열기 재점화... 케이뱅크 흥행 '관심'

코스피 강세... 공모주 자금 재유입
케이뱅크 청약, 'IPO 풍향계' 주목
내달 바이오·헬스케어 대어 줄대기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이래연 씨(47)는 지난해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이때부터 달라졌다. 에임드바이오와 이노테크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제든 뺄 수 있도록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둔다. 또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기업공개(IPO) 일정을 챙긴다. 이 씨는 "연초부터 증시가 달아오르는 걸 보니 공모주 대박도 계속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내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가 올해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 행진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며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도 초대어급 공모주가 줄줄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천피 증시에 대한 거품(과열) 우려가 점증한 가운데 공모주도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3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감한다. 올해 첫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케이뱅크의 흥행 여부는 향후 IPO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공모금액은 498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3673억원이다. 기관수요예측에는 2007개 기관이 참여해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주문 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했다. 세 번째 상장 도전 끝에 몸값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 만큼,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정한 점을 두고 최근 공모시장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수 랠리로 투자심리는 개선

됐지만 기관 수요는 가격 매력도를 중시하는 보수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IPO 시장에서는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용인할 정도의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 이후에도 2월 청약 일정은 이어진다. 오는 23~24일에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에스티엠과 엑스비스가 나란히 일반 청약에 나선다. 에스티엠은 모델 장운주·한혜진이 소속된 브랜딩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브랜드 마케팅 및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모가는 지난 20일 8500원으로 확정됐다. 엑스비스는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희망 공모가는 1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두 회사 모두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가격을 확정했다.

3월 들어서는 바이오와 의료·소재 기업들의 IPO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MRI 조영제 기술을 보유한 인벤테라, 항암·안과 치료제 개발사 카나프테라퓨틱스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추와 냉각마취 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리센스메디컬 등도 청약 일정이 거론된다. 성장 산업 중심의 공모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선택지는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IPO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스피 상승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지난해 일부 대형 딜의 일정 순연 효과, 상장 준비 기업 증가 등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이 80여곳에 달하고 공모 규모도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 급등에 따른 기대감이 공모주 시장으로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구주매출 비중과 공모가 밴드 하단 확정이라는 점이 투자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상장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경우 후속 딜의 공모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풍년의 해, 코스피 첫 수확이기에 케이뱅크의 신규 상장과 그 영향이 향후 IPO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I, 투자 인프라로... 해외 ETF까지 확장” SOL 코리아고배당, 순자산 5000억 돌파

인터뷰 왕현민 토스증권 PO

AI 시그널, 주가 변동 포착해 연결
美 어닝콜에 실시간 채팅 기능 도입



왕현민 토스증권 AI 사일로 프로젝트 오너(PO)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시그널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장하는 한편, 미국기업 어닝콜에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AI를 단순한 보조 기능이 아닌,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어닝콜 실시간 채팅 기능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며, 해외 ETF를 대상으로 한 AI 시그널 확장은 3월 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스증권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왕현민 AI 사일로 프로젝트 오너(PO)는 "AI는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정리해주는 도구여야 한다"며 "토스증권에 오면 믿고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정보가 있다는 인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해외 ETF까지 넓히는 AI 시그널... "설명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

토스증권 AI 전략의 중심에는 'AI 시그널'이 있다. 개별 종목의 유의미한 주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관련 뉴스와 공시를 연결하고 등락 배경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과 주요 지수 중심이었지만, 토스증권은 이를 해외 ETF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왕 PO는 해외 ETF를 개인투자자가 이해하기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았

도록 하기 위해서다.

왕 PO는 "수만 명이 동시에 어닝콜을 듣지만, 대부분은 초반만 듣고 이탈한다"며 "채팅을 통해 몰입도를 높이고, 어닝콜을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이해하는 경험'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어닝콜 실시간 번역과 요약 기능에 채팅을 결합해,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의 핵심을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시간 채팅이 리딩방이나 금융사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비방·외부 링크 차단,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존 커뮤니티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왕 PO가 AI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정확도'다. 토스증권의 AI 서비스는 자동 생성되지만, 사람의 검수 과정을 전제로 운영된다. AI 시그널은 하루 수백 건씩 생성되며, 현재도 운영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하며 오류를 걸러낸다.

이 때문에 토스증권은 외부 솔루션 대신 인하우스 AI 전략을 택했다. 자체 모델을 구축해야 품질을 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왕 PO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틀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출처 공개와 운영 인력의 개입이 함께 가야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 PO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 정확한 맥락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증권의 AI 서비스는 수익보다는 신뢰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운용, 개인 누적 순매수 3181억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장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3181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된 36개 고배당 ETF 중 자금 유입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규모 역시 지난해 말 2624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연초 이후 2700억원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국내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시즌을 앞두고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단순 고배당 종목 나열이 아니라, 세계 혜택과 주주환원 정책을 구조적으로 반영해 실질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자사주 매입·소각 장려 정책 등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ETF 운용 전략에 반영한 차세대 고배당 상품이다.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과 감액배당 실시 기업 등 정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움증권 사회공헌단, 나눔으로 온기 전해

작년 13개 기관 후원

키움증권 사회봉사단 '키움과나눔'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봉사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키움과나눔이 총 13개 기관을 후원하며 참여형 임직원 봉사를 11회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인발달장애인 나들이 동행,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특식 배식 봉사 등 다양한 참여형 봉사를 추진했다.

키움과나눔은 지난 2012년 키움증권 사내사회봉사단으로 창립됐다.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키움과나눔은 창립부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힘써왔다. 장애인 및 결혼 아동과 정기적으로 만나 체험 활동을 함께하고, 낯은 집을 수리하고 골목 벽화를 그리는 등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서울 영등포구 소재 2가구와 동작구 소재 4가구를 임직원들이 직접 수리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비롯한 초복, 말복, 연말 등엔 특식을 나누는 배식 봉사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

K-소비재 2030년 700억달러 목표 유통플랫폼 해외진출로 판 키운다

산업부·코트라, 해외진출 첫 시행 해외동반진출 '하이웨이' 구축 매년 13개 플랫폼 3년간 육성 온라인몰·물류·결제 '패키지' 지원 유통 최대 63억·역직구 11.3억 해외플랫폼 의존 줄여 판로 확대

정부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유통플랫폼의 글로벌화를 본격 지원한다. 플랫폼과 입점 소비재 기업이 함께 해외로 나가는 '동반진출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2일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유통망·역직구 플랫폼의 글로벌화를 위해 3년간 매년 4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내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국내 유통 플랫폼을 '글로벌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해외 매장 개설을 넘어, 해외 소비자 대상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물류·결제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K-소비

재 수출은 2025년 46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도약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K-소비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아마존(Amazon), C-커머스(알리·테무·위인)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해외 플랫폼은 그러나 글로벌 접근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입점 수수료와 가격 협상력, 고객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내 일부 선도 유통기업도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 부담과 현지 경험 부족 등으로 중국·일본 등 인접 시장 중심의 제한적 진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통 플랫폼이 현지에 안착하려면 시장 이해는 물론, 수출 물류체계 확보와 결제 시스템 구축까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향후 3년간 매년 13개(유통 8개, 역직구 5개)의 플랫폼을 선정해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통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63억 원(자부담 30%), 역직구 플랫폼에는 기업당 최대 11.3억 원(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해

외 마케팅, 물류, 인증, 광고·홍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타깃 지역의 통관·관세 제도 및 시장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특히 역직구 플랫폼은 K-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성장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또는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현지 바이어 발굴 없이도 빠르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제품 역직구 규모는 29억 달러로 4년 만에 2.6배 성장했다. 정부는 해외결제·물류 기능을 포함한 글로벌 전용몰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마케팅과 물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외시장에서 K-소비재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K-유통 플랫폼'의 수출 역량을 높여 통째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통해 유통 서비스와 소비재 수출을 동시에 늘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50년 미해결 고준위 방폐물 해법 논의 착수

고준위관리위원회 첫 회의 열어

국내 원전 역사 50여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가동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개최되는 공식 회의다. 원전 가동 이후 5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처리한다. 운영세칙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의 소집 절차,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등 회의 운영의 세부 기준을 담았다.

이어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소·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을 담은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도 점검한다. 해당 계획은 특별법 제20조와 2021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소·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노후 연안선박 교체 지원 본격화

펀드·금융·자부담 결합 방식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됐으며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을 개시했다.

앞서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했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해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건조 비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상향했다"며 "더 많은 선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농기계화 실행력 높인다

민관 협업 설명회 순회

정부가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 중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생산성 제고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관련 해, 이달 하순 각 지방 순회를 통해 융자사업·운영방안 등의 정보 공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충남 천안(2월24일), 대구(2월25일), 전남 나주(2월26일) 등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융자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정부융자 지원과 검정 제도 개선사항이 공유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스마트 농업기계 확산 등 구조적 과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된 생성형 AI '이삭이·새싹이' 모형물.

/뉴시스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현장형 AI 서비스 확대

농진청, AI 행동계획 농업 후속조치 데이터 통합... 전주기 관리체계

농촌진흥청이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첨단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농업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 데이터 기능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에 '농업지능데이터팀'으로 통합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농업 과학 기술

의 AI 대전환을 목표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현장 체감형 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AI 새싹이'를 도입해 실험 설계 자동화 등 연구 전주기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재배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 클라우드와 분석 기반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주도한다. 지능형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시설 및 노지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농업인이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남부발전, 부산과학관과 과학교육 협력

부산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MOU

한국남부발전이 국립부산과학관과 손잡고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0일 국립부산과학관과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청소년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국립부산과학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미래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대상 과학문화 확산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향후 5년간 총 1억5000만 원을 국립부산과학관에 후원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발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오른쪽)과 송삼중 국립부산과학관장이 지난 20일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전·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등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부산지역 교육여건을 향상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딱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퓨터매니저 소유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경북, 농식품유통 분야 3440억 투입...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APEC 통해 농식품 인지도 향상
2026년까지 유통 인프라 확장
'식품 세계화 전략'으로 판로 확대
농가소득 안정 위해 직거래 활성화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K-푸드 확산 흐름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농식품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정상과 각국 대표단에 경북 농식품을 소개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알린 경험을 토대로 해외 인지도 제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와 연계해 시장 개척을 본격화한다.

해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K-푸드 확산을 농식품 가공산업과 수출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 792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중소·소규모 가공기업 13곳에 총 82억 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는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별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반영한 해외 판촉행사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8개국 13개 업체 지원, 해외 상설판매장 8개국 10개소 운영 등에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산지 유통구조의 스마트화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 체계 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

지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16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판로 다각화와 농가 소득 안정 지원에도 486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신상품 발굴과 제휴 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TV 홈쇼핑·바로마켓 경상북도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취약 농가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유통 채널을 넓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류 확산과 함께 식품 산업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만원으로 인상

경남도가 올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기존보다 30만원 인상하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지급액은 경영주 기준 60만원으로,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수준을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는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을 받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청년문화패스 6171명 발급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어지면서 지원 인원은 지난해 3608명에서 6171명으로 늘었다. 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용처도 기존 공연·전시에서 영화까지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발급 신청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울산=박기선 기자

창원시

'스마트 경로당' 시범 사업 성료

창원시는 디지털 복지 확대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와 콘텐츠를 경로당에 도입해 어르신들이 화상 교육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옛 마산권 일원 4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개통하고, 이용 편의성과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 안정성 점검을 위해 주 1회 2회차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 공동대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간담회 개최 사업 추진상황·주민 질의 답변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상웅 의원,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합천군을 비롯해 수해 지역인 창원시·양산시·함안시·김해시 부단체장이 배석하는 등 관련 지자체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상황 보고(기후에너지환경

부) ▲취수지역 상생협력방안 보고(부산시) ▲질의응답 및 기관별 입장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상황을 그동안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주요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지점별 취수계획과 지하수위 영향범위, 지하수위 감소 대책, 손실보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는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기숙사 지원 ▲창녕군 농산물 구입 지원 등 지역 유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보개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뤘고 이를 위해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동해안 해양관광 거점 강화

울릉군 방문해 상생협력 간담회

포항시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 거점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울릉군을 찾아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권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해양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울릉도의 해상관광 운영 사례를 공유해 포항-울릉 연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시군 관계자와 포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버넌스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울릉도의 해양관광과 크루즈 운항 현황, 야간 관광 콘텐츠 운영 사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포항과 접목 가능한 협력 방



포항시는 20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기능을 고도화하고 권역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울릉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포항을 축으로 울릉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권역이 관광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기능을 분담해 상호 보완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울주, 청년 일자리·주거 등 226억 지원

청년정책 34개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올해 청년지원사업에 226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34개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청년이 만드는 내일, 함께 성장하는 울주'를 비전으로 ▲일자리·창업 ▲주거·결혼 ▲교육·생활 ▲문화·복지 ▲참여·권리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이다. 분야별 투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결혼 분야로, 120억 원이 편성됐다. 울주군 청량 지역에 청년 특화주택 100호를 신규 건립하고,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을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산후 조리비용 지원, 난임 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등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일자리·창업 분야에는 36억 원이 투입된다. 어학·국가공인자격증 등 900여 종에 대한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생애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교재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면접 장장대여 사업은 1인당 연 최대 4회로 확대하고 구두를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연결망 서비스를 신규 도입, 청년 안전망을 강화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산청군·신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배

(신용보증기금)

중소 거래대금 미회수 위험 낮춰

산청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손잡고 관내 중소기업의 거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청군은 지난달 신보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보험료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지원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은 신보와 경남도 협약에 따른 보험료 50% 지원에 더해 산청군 보험료 20%를 추가로 받는다. 여기에 신보에서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받을 경우 자부담 20%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감소시키고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거제시

공공현수막 전면 '친환경' 전환

거제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공공현수막에 친환경 원단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 시행이다.

'거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분청·직속 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 등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공공현수막에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원단 사용이 의무화된다. 거제시 공공현수막은 연간 6000~6400여 장이 제작·폐기되며 기존 일반 원단 사용 시 연간 약 22.5톤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외식업계, '구조적 비용' 한계 김밥·버거 등 가격인상 움직임

원재료비·인건비·환율 등 압력
저마진구조 지속... 수익성 비상
"소비부담 고려해 인상 폭 최소화"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외식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원재료비·인건비·환율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 위축 우려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수익 확대가 아닌 구조적 비용 상승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주요 버거 메뉴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다.

맥도날드는 20일부터 단품 기준 35개 메뉴 가격을 평균 2.4% 올렸다. 인상폭은 100~400원 수준이다. 대표 메뉴인 빅맥은 5500원에서 5700원으로, 볼고기버거는 3600원에서 3800원으로 각각 200원 상승했다. 사이드 메뉴도 인상돼 후렌치후라이(M)는 2600원, 탄산음료(M)는 2000원이 됐다.

버거킹도 지난 12일부터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 대표 메뉴 와퍼 단품 가격은 7200원에서 7400원으로 올랐고 와퍼 주

니어와 프렌치프라이도 각각 200원, 100원씩 인상됐다. 두 회사 모두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KFC 등 다른 주요 브랜드는 아직 공식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비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가격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이 겹치면서 김밥, 삼겹살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도 오름세다.

행정안전부 '외식비 가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00원으로 전월 대비 2.1%,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쌀값 급등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 부재료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이다. 건조 김(100장)은 1년 새 4.1%, 시금치(4kg)는 26.2%, 달걀(30개)은 18.5% 각각 상승했다.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 가격 역시 오름세다. 서울 기준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은 2만1056원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2024년 5월 처음 2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삼

계탕은 1년 새 5.1% 오른 1만8154원, 칼국수는 4.9% 상승한 9923원으로 1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김치찌개 백반은 4.7% 상승한 8654원을 기록했고 냉면(4.2%), 비빔밥(3.1%), 자장면(2.1%) 등 주요 외식 품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외식업계는 가격 상승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 확대를 지목한다.

문제는 가격을 올려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구조다. 상장 외식기업인 롯데GRS,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문다. 특히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은 2~4%대 저마진 구조다.

통상 외식업은 식재료비가 매출의 30~40%, 인건비가 20~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임차료, 카드 수수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이 더해지면 점포당 순이익률은 5~10% 수준에 그친다. 메뉴 가격을 5% 올려도 비용이 함께 상승하면 실제 이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소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비용 상승세가 이어지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구신세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 대구신세계 대규모 리뉴얼

6층 스포츠·7층 캐주얼 매장 오픈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개점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전 층 리뉴얼에 돌입하며, 그 시작으로 6층 스포츠 매장 7층 캐주얼·여성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2월 문을 연 대구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명품 브랜드를 5층에 배치하고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주라지'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을 갖춰 큰 호응을 얻었다.

새롭게 단장한 6층은 지난 1월 말 지포어, 타이틀리스트 등 골프 브랜드를

시작으로 아크테릭스, 살로몬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연달아 들어섰다. 13일에는 가민, 나이키 스웬 등이 문을 열었으며 24일에는 데상트가 새로운 매장을 공개한다.

7층 역시 리바이스, 럭키슈에프, 시스템 등 영스트리트 및 영컨템포러리 브랜드와 텐디, 닥스 등 잡화 매장이 새 옷을 입었다. 쿠에른, 킨 등 캐주얼 슈즈가 신규 입점했으며, 매월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 액세서리 팝업스토어 존도 신설해 첫 주자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그레이맨션'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CU, get커피 판매 급증... 배달서비스 주효

4개월만에 판매량 2배 이상 증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자체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get 커피의 배달 서비스 도입 4개월 만에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지난해 9월 배달의민족(배민스토퍼)을 통해 약 2000여 개 점포에서 즉석 원두커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 4개월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판매량은 도입 초기 대비 11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운영 점포 수가 25%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점포당 판매 효율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입지별로는 독신자 주택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간편하고 빠른 소비를 선호하는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점 배달의 즉시성이 맞물린 결과다. 상품 유형은 계절과 관계없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며 아이스커피 비중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인 12~13시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반 카페가 문을 닫는 야간 시간대인 21~23시에도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늦은 시간에도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는 편의점 배달만의 강점이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中 국유기업에 라이선스 기술 수출

싱후이핀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아미노산 산업 지속성장 토대 마련"

CJ제일제당은 중국 국유기업 '싱후이핀(StarLakeEppen)'과 라이선스 제품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발판으로 CJ제일제당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판매 중심의 라이선스 사업을 라이선스·기술 이전 등 미래 사업 모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라이선스 균주 사용권을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형태로 싱후이핀에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라이선스 발효·균주 공정 최적화 기술력과 싱후이핀의 대규모 생산력 및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



엔 샤오린(Yan Xiaolin) 싱후이핀 대표와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다. 싱후이핀은 세계적인 바이오 발효 기술 기업으로, 아미노산, 식품 첨가물,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도 확보할 전망이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는 협력식에

서 "CJ제일제당의 라이선스 기술력과 균주의 가치가 다시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두 회사가 함께 아미노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사는 향후 생명공학 및 바이오 발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1991년 라이선스를 시작으로 2000년 쓰레오닌, 2010년 트립토판, 2014년 발린, 2015년 메치오닌으로 그린바이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현재는 총 8종의 세계 최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중인 전체 제품을 자체적인 발효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춘절기간 외국인 매출 급증

중화권 매출 260% ↑... 역대 최고

롯데백화점이 올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 외국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본격적인 춘절 프로모션을 진행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외국인 매출은 전년 춘절 동

기 대비 120%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고객 매출이 260%나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썼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연휴와 혼잡을 피하려는 이른 출국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외국인들의 필수 쇼핑 코스인 본점은행당 기간 외국인 매출이 180% 뛰었다. K-패션 전문관 '키네티크라운드'를 필두로 K-패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8배

폭증했으며, 한정판 위주로 인기를 끈 스포츠·아웃도어 매출도 255% 증가했다. 뷰티 카테고리 역시 메이크업 프로모션 등이 중국 SNS '샤오홍슈'에서 화제를 모으며 80% 신장했다.

잠실 롯데타운과 부산 지역 점포도 특수를 누렸다. 잠실은 온화한 날씨 속 체류 시간이 늘며 외국인 전체 매출과 F&B 매출이 각각 80%, 85% 늘었다. 부산본점과 롯데몰 동부산점은 각각 190%, 145%의 외국인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세븐일레븐, 세프 협업 하이볼 인기몰이

후덕죽·윤나라 협업제품 매출 상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달 말 유명 세프 후덕죽, 윤나라와 협업해 선보인 하이볼 2종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후덕죽유자고량주하이볼'과 '윤주모복분자하이볼'은 카테고리 매출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

다. 이는 올해 내세운 미식 마케팅의 일환이다. 세프가 개발부터 참여해 여러 차례 테이스팅을 거쳐 캔 하이볼의 품질을 극대화한 점이 주효했다.

세븐일레븐 송승배 음료주류팀 상품기획자는 "스타 세프의 노하우가 소비자 눈높이를 단기간에 충족시켰다"며 "편의점 하이볼이 하나의 주류 문화로 정착한 만큼 차별화된 라인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오뚜기 '오늘의 만두' 출시

오뚜기가 활용도 높은 '만능 만두' 신제품 '오늘의 만두(사진)'를 출시했다. '오늘의 만두'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교자만두다.

한입에 먹기 좋은 교자 형태로 만들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피와 감칠맛을 살린 만두소의 조화가 돋보인다.

300g과 500g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지퍼백 포장을 적용해 보관 편의성도 높였다.

/신원선 기자

브랜드는 디바이스, ODM은 기술... K-뷰티 주도권 경쟁

에이피알, 하반기 신제품 출시 예정
아모레, 삼성 등과 협업해 기술 확보
코스맥스, 한·일 대학과 연구 협약

K뷰티 산업 전반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뷰티 업계에서 대형 브랜드 기업은 물론 신생 기업까지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화장품 제조 기업까지 기술력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중장기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신제품 1~2개를 출시할 계획이다. 뷰티테크 연구 개발부터 자체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데 이어 제품군을 기능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해당 신제품은 항노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7년 말~2028년 초에는 PDRN 소재를 활용한 인제터블 제품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의료기기 4등급 수준으로 인증 및 인허가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현재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테크'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앞서 만능형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고주파 홈뷰티 디바이스 '울트라 톤 40.68', 고강도집속포음과 제품 '하이 포커스 샷' 등으로 제품군을 추가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뷰티 디바이스 제품 매출만 전년 대비 30% 늘어 4069억원을 올렸다.

에이피알 측은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인 메디큐브의 제품과 독자 기술을 집약해 다각화한 뷰티 디바이스의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동반 성장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혁신 기술 개발과 함께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메이크온을 재단장하며 신제품으로 스킨라이트 테라피 3S, 썬 소노 테라피 릴리프, 온페이스 LED 마스크 등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어 스킨케어뿐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 등으로 다양한 웰니스 영역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등과 협업하는 등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는 '인공지능(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과 'AI 뷰티 미러'를 소개했다. 해당 기술들은 카메라 기반 광학 진단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피부 모공, 홍반, 색소, 주름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역노화 원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홀리스틱 롱제비티 솔루션을 구축해 글로벌 뷰티 및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코스피 상장으로 외형 성장을 이룬 신생 뷰티 기업 달바도 뷰티 디바이스 경쟁에 합류한다.

달바는 지난해 3분기부터 상장 후 성장 전략으로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인 미스트 등에서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달바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홈뷰티기기 사업 매출도 키웠다.

이처럼 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뷰티 디바이스에 주력하자, 화장품 제조업체의 '뷰티 디바이스' 기술력도 K뷰티 위상을 높일 것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최근 '스카 뷰티

디바이스'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세계 최초 원스톱 통합형 기술이다.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한 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통해 상처를 가렸다면 해당 기술은 10분만에 치료와 미용을 동시에 구현한다.

코스맥스도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서울대학교 및 일본 도쿄대학교와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3자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동 연구는 의료용 시술 원리를 화장품 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장품의 유효성분 흡수를 돕는 피부 전달체, 뷰티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신규 소재 등을 개발한다.

코스맥스가 이번 프로젝트 설계 전반과 스마트 전달체 상용화 전략을 맡고, 도쿄대와 서울대가 환경 반응성 스마트 전달체의 설계, 표면 개질, 개발을 담당한다.

코스맥스 측은 "K뷰티 연구개발 노하우를 쏟아 왔다"며 "화장품에 뷰티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스마트 코스메틱'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달달 바삭... 카페도 '두바이st 음료' 붐물

투썸, 모카·웨이크 형태 2종 판매
스타벅스, 미국서 말차 더해 선출시

두바이식 디저트 열풍이 이어지면서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관련 콘셉트 음료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에 바삭한 카다이프 식감을 더한 '두바이스타일' 디저트를 음료 형태로 재해석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두바이스타일 초콜릿 음료 2종 판매를 시작했다. 신제품은 '피스타치오 초콜릿 모카'와 '피스타치오 초콜릿 젤라또 웨이크'다. 모카 제품은 진한 커피 베이스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초코셀, 카다이프를 얹었고, 웨이크는 피스타치오 초콜릿 베이스에 초콜릿 젤라또와 카다이프를 더해 식감과 풍미를 강조했다.



스타벅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 음료를 출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투썸플레이스는 신제품 출시 배경에 대해 기존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 '두초생 미니' 흥행을 꼽았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사전예약에 약 13만명이 몰리며 5분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앞서 스타벅스도 이달 11일 두바이 콘셉트 음료 2종을 국내에 선보였다. 해당 메뉴는 북미에서 먼저 출시돼 인기를 얻은 제품으로, '아이스 두바이 초콜릿 모카'와 '아이스 두바이 초콜릿 말

차'로 구성됐다. 스타벅스는 해외 판매 제품을 국내에도 선보여 달라는 고객 요청이 이어지자 동일 레시피 도입을 결정했다.

모카는 에스프레소와 초콜릿 소스 조합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폼을 올렸으며, 말차 음료는 피스타치오 소스와 말차 풍미에 초콜릿 크림 콜드폼을 더한 논커피 메뉴다.

파스쿠찌 역시 지난 9일 두바이스타일 시즌 음료 '두바이st 딥초코 라떼'를 출시했다. 진한 초콜릿 음료에 쫄득한 피스타치오 크림과 바삭하게 구운 카다이프 토핑을 올린 것이 특징이며, 해당 제품은 4월 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는 익숙한 초콜릿 풍미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식감을 더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차병원과 피부 연구 학술지 게재

미생물별 피부 장벽 반응 분석

애경산업이 차병원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피부 장벽 기능 영향 규명' 연구성과를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3D 인공피부 모델에서 미생물별 피부 장벽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인공피부 환경을 구현하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 장벽 간 상호 작용을 탐색했다. 피부 상재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쿠스 호미니스, 큐티바테리움 아크네가 피부 장벽 관련 단백질 발현과 지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피부 항상성 유지 기작 등에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특히 피부 가려움증, 여드름, 트러블 등과 관련해 피부 회복 및 손상 방어에 유의미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애경산업은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피부 고민에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애경산업 뷰티융합연구팀과 차병원 피부과 신경우 교수 연구팀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도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두경부암 신약 임상3상 지속

적절 투여 용량 20mg/kg 선정

LG화학은 미국 자회사 아베오가 항암제 후보물질 '파이클라투주맙'의 적절 투여 용량을 최대 함량인 20mg/kg으로 최종 선정하고 임상3상을 지속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맹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임상 3상(FIERCE-HN)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을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HGF)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 항체 기반 표적항암제다.

FIERCE-HN 연구는 백금 기반 항

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음성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툽시맙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툽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한다.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국가에서 시험자를 기 계획한대로 모집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안전성 최고등급 소재 적용

조아제약이 특허받은 용기 조아세피지 앰플을 적용한 '헤파토스 시럽(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아세피지 앰플은 미국 약전(USP)에서 인증한 안전성 최고 등급 소재를 적용한 용기다. 인체 공학적 설계로 국내 특허를 취득하고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해외 30개 국가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단일 소재를 사용해 분리 배출과 재활용까지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다. 국가공인시험기관 코티에서 환경호르몬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뢰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헤파토스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아르기닌, 베타인, 구연산 세 가지 성분의 상승 효과가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 준다. 액상 제형이 체내에 신속하게 흡수돼 간의 에너지 합성, 해독 등에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규모, 1년만에 8배 성장
 쿠팡이 운영하는 장애인 e스포츠팀 규모가 창단 1년여 만에 8배로 훌쩍 커졌다. 전문적인 훈련 시스템과 100% 재택근무 등 유연한 환경이 고용 확대와 대회 실적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은 (왼쪽부터)쿠팡 e스포츠팀 김민준 선수와 김규민 선수. /쿠팡



애슐리퀸즈 딸기축제 15일 만에 120만명 방문
 이랜드이츠의 월드 고메 뷔페 '애슐리퀸즈'가 지난 2월 5일 시작한 2026년 딸기 축제가 시작 15일 만인 2월 19일까지 누적 방문객 120만여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딸기 시즌은 전국 애슐리퀸즈 매장에서 동시에 운영 중인 애슐리 대표 시즌 콘텐츠로, 생딸기 바스켓을 포함한 딸기 디저트 12종을 선보이며 고객 수요가 집중됐다. /이랜드이츠



정성진 삼육대 본부장, 부모 뜻 기리며 1200만원 기탁
 삼육대학교 정성진 브랜드전략본부장(가운데)이 고(故) 정용근 목사와 정부연 사모의 이름으로 1200만원을 기탁하며 '개교 120주년 감동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22일 삼육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대학 개교 120주년을 맞아 정 본부장이 형제들과 상의 끝에 부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삼육대



BNK부산은행, 이달 정기 지역봉사활동 실시
 BNK부산은행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상생금융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BNK부산은행 지역봉사단 2월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부산 전역 16개 구·군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봉사 활동에는 BNK부산은행 소속 임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복지시설 연계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삼성전자-LG U+와 공동 마케팅 '맞손'
 우리은행은 최근 삼성전자 및 LG유플러스와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HD현대중,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울산 집결

'이지스 구축함의 날' 지정 3척 함장 초청해 오찬 간담회
 주원호 사장, 해양방산 의견 나눠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정조대왕함·다산정약용함·대호김종서함)이 울산 조선소에 함께 집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을 '이지스 구축함의 날'로 지정하고, 3척의 함장들을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현재 시운전 평가 중인 2번함 다산정약용함은 지난해 12월 진수됐으며, 오는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마지막 함정인 대호김종서함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진수와 시운전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7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집결한 최신 이지스 구축함 1-3번함 '정조대왕함·다산정약용함·대호김종서함'의 모습. /HD현대

년 12월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정조대왕급 최신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는 8200톤(t)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k

m/h)의 속력을 갖춘 전투함이다.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대비 표적 탐지·추적 능력이 두 배 이상 향상됐으며, 요격 기능까지 갖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4월과 11월 존 필린(John Phelan) 미 해군성 장관과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 해군 참모총장이 각각 정조대왕함과 다산정약용함에 승선해 기술력과 생산 역량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함정·중형선사업대표)은 조선소 내 영빈관에 정조대왕함 조완희 대령, 다산정약용함 구분철 대령, 대호김종서함 장현도 대령(진) 등 세 함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주사

장은 해양방산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K-해양방산 경쟁력 제고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신 이지스함(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의 기본설계를 주관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다. 1976년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I·II·III를 모두 건조했으며, 올해까지 총 108척의 함정·특수선을 건조했다. 또한 국내 최다인 20척의 함정을 수출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조한 최신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울산 야드에 다같이 모이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해양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 향년 85세 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퍼펙트 세럼 팝업'

국내 첫 면세점 등 '유통업계 대모'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사진)이 21일 향년 8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롯데재단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날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임종을 맞았다.

1942년 신 명예회장과 첫째 부인 고(故) 노순화 씨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의장은 1970년대 호텔롯데에 입사하며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을 업계 최상위권으로 성장시키며 아버지와 함께 롯데그룹의 도약을 이끌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면세점을 선보이는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아 '유통업계 대모'로 불렸으며, 국내 재계 2세 경영인 가운데서도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받았다.



2008년에는 롯데쇼핑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신 의장은 최근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며 경영권과 거리를 두고 재단 활동에 집중해 왔다.

그는 2009년 롯데삼동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데 이어, 2012년에는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연이어 맡으며 사회공헌 사업에 헌신했다.

장례는 장 이사장이 상주를 맡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롯데재단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3일 오전 9시 20분이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남공원묘원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26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서 운영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트렌드팻바이 올리브영N 성수에서 '미장센 퍼펙트 세럼 팝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브랜드 대표 제품인 퍼펙트 세럼을 주제로 360도 무빙 포토 부스, 밸런스 게임 등으로 꾸며졌다. 나만의 헤어 스타일을 갖추며 무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윤기, 부스스함, 건조함 등 헤어 고민에 따라 브랜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퍼펙트 세럼은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면서 매끄럽고 끈적이지 않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현장에는 미장센 브랜드 모델인 걸



미장센 브랜드 모델 에스파가 퍼펙트 세럼 팝업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에스파가 방문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후 행사 기간 동안 연휴 일정이 맞물려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약 12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점점 확대를 통해 브랜드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칭하 기자 mlee236@

현대리바트, 결혼·이사철 맞이 행사

한 달간 '리듬 페스타' 행사 진행 총 2000여 종 제품 구매혜택 제공

현대리바트가 결혼 및 이사 시즌을 맞아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리듬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22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리듬페스타는 '리바트 특별 혜택 페스타'의 줄임말로, 현대리바트가 상·하반기에 나눠 연 2회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가정·사무용 가구부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브랜드 '집테리아'의 패키지까지 총 2000여 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파, 리클라이너, 침대·매트리스 패키지 등 가구 제품을 정사가 대비 최대 10% 할인 판매하며 250만·300만·500만·700만·900만·1000만원 이상 구매 시 금액대별 결제액의 각 5·6·7·8·9·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사가 대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특가 상품도 30종 마련됐다.

또한 주방·장호·중문 같은 집테리어 제품은 정사가 대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인덕션, 현관장 등 인테리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사무용 가구인 오피스 제품의 경우 정사가 대비 최대 45%의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현대리바트는 행사 기간에 맞춰 '우리집에 필요한 리듬'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맞춤형 불박이장이나 높이조절 테이블 같은 가구가 필요한 사연을 제출하면, 주제를 통해 4명을 선정해 현대리바트의 신제품인 스와니에 침대, 에드 불박이장, 위부브 전동높이 조절 테이블, 가니 소파를 각각 증정하는 행사다.

/김승호 기자 bada@

상사법학회 회장에 최병규 건국대 교수

임기 내달부터 1년

건국대학교는 최병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난 20일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1년이다.

상사법은 기업 거래, 영업, 거버넌스, 소송 등 다양한 경영 행위와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영역이다.

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로, 법학 교수와 변호사, 기업 실무가 등 약 18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재학술지 '상사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상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중추적 학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상사법학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 **지식재산처** ◇전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송성현

부음

▲ 김덕성(전 연합뉴스 업무담당 상무이사·전 연합뉴스 경제국장)씨 별세, 김애경씨 남편상, 김보영·김유철씨 부친상, 박재연씨 장인상 = 21일 오후 5시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3410-6915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친환경 마케팅 두 얼굴 '그린워싱'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는 지난 여름의 폭염과 이번 겨울의 한파를 통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후와 환경 문제가 현재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신들의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라거나 자신들은 지구와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경영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주의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선전,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표면적으로만 이용해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해 왔다. 해당 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환경이나 국제 규범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해당 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고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해야 한다는 '실증성'의 원칙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과정성'의 원칙 ▲그 대상이 제품이

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돼야 하는 '구체성'의 원칙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위 각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10월 친환경 경영활동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서 별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경영방침이나 목표 등의 경영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마찬가지로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상당성, 자발성, 완전성, 관련성, 실증성 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표시·광고가 그린워싱에 해당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모두가 '친환경'에 주목하는 시대이지만, IR이나 마케팅 쪽 담당자라면 그린워싱으로 평가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대한민국의 2050년대 올림픽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최가온과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 눈밭을 종횡무진 누볐다. 설상종목 변방국의 경이로운 점프에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가 놀랐다. 둘 다 고교생인 게 더욱 놀랍다.

KLPGA에 버금가는 세대의 탄생을 예고한 대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드키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역시 이번 무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체육 부문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인

구구조 탓이다. 스노보드 말고도 우리가 출전하는 각 종목에서 이 같은 성적·순위가 계속 유지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이 대한체육회 등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일할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 듯 대회에서 뭘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인구구조. 20~30년 후의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 열에 아홉이 15세 이상이다. 14세 이하 유소년을 제외한 인구 비중은 올해 9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유소년(13.7%)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층(13.2%)보다 컸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노인보다 많았다는 얘기가.

지금은 노인 수가 아이들의 2배다. 올해

1월 집계로 14세 이하는 10.2%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은 21.3%까지 치솟았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중이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관련 비교에서 최근 일본마저 제친 한국은 지구촌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은(비중 기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 주 후엔 월드컵이 열린다. 몇 달 후엔 FIFA 월드컵이 열린다. 십수 년, 수십 년 뒤에도 개최될 터. 물론 메달 획득이, 16강 진출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넘치는데 현역 선수는 턱없이 모자란 대한민국...스포츠 포함,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세종=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3일 (음 1월 7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눈앞의 욕심보다는 주위 자문을 듣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실수가 있더라도 대범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조그마한 일에 더욱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 소** 49년생 자신의 생각을 믿는게 좋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실수를 풀어주고 배려해 주세요. 73년생 처음엔 어렵지만 노력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 토끼** 50년생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62년생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돕는 게 좋습니다. 86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 도끼** 51년생 때를 기다리며 먼저 힘을 기르세요. 63년생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75년생 무리되더라도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87년생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갑니다.
- 말**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 뱀** 53년생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89년생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 닭** 5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66년생 혼자 하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78년생 뒷사람의 말을 들으면 갑니다.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키고 성과가 있습니다.
- 양** 55년생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67년생 인기를 얻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79년생 재물운과 이성운 모두 좋습니다. 91년생 혼자 차지하면 사색을 얻고 나눌수록 이득이 더 늘어납니다.
- 원숭이** 56년생 주위의 말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8년생 평탄할 때 일수록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80년생 선택을 해야한다면 동남쪽이 더 갑니다. 92년생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 닭** 57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81년생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일이 좋습니다. 93년생 지금은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 개**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갑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갈갈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 돼지** 59년생 지금은 신중함보다는 자신감이 더 필요합니다. 71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83년생 어려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95년생 친구나 지인 과 만나면 즐겁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재물의 신

필자의 한 지인은 재물은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그는 자신에게는 검약하되 남에게는 먼저 밥값이나 커피값을 낸다. 만나는 모임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챙겨서 나간다. 그는 나누어야 커진다는 소신도 지녔지만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라는 신념도 있지만 아낀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믿기에, 죽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일부는 그렇게라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믿는다. 또한, 자식에게 남겨준들 그 재산을 잘 지킨다는 확신도 없기에 부모의 넉넉한 베품이 덕으로 회향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딴겠는가. 인명은 재천이지만 수명은 예측치가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해 재물은 사주상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물은, 즉 재성(財性)이 뚜렷한 사람들에게는 착실한 준비를 강조하고 싶다.

재성이 땅에 있다면 부동산투자를, 화기운이 강하면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림 같은 자산투자를 한다. 특이한 것은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는 겸행하기가 운기의 성격상 쉽지 않다. 부동산 부자는 웬만해서 주식 투자를 즐기지 않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횡재운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과 같은 횡재운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도 같은 재운이기 때문이다. 횡재(橫財)는 '뜻밖'에 얻은 재물'이라는 한자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로 놓인 나무처럼 재물이 오하려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혹여 꿈꾸던 한 방이 이루어졌을 때, 일부는 그동안 알던 지인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 행운을 두루두루 나눌 때 운명의 시샘은 방향을 튼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5		
				5	4			
3								9
	4		5		1			3
9	3						5	1
1			6		8			4
7								2
			9	1				
		9		8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8	9	2	8	2	6	1	9
9	8	2	8	1	6	7	9	2
2	6	1	9	9	7	8	2	9
2	7	6	8	8	9	9	2	1
1	9	8	2	7	9	6	8	6
8	9	2	1	6	5	2	7	8
6	2	7	9	2	8	1	9	8
8	2	8	7	9	1	2	6	9
9	1	9	6	2	8	8	2	7

9	6	8	2	1	2	7	8	9
9	8	2	8	9	7	6	1	2
7	2	1	9	8	6	2	8	9
8	1	7	6	9	8	9	2	2
2	2	9	1	8	9	8	6	7
8	9	6	7	2	2	8	9	1
6	9	9	8	7	1	2	2	8
2	8	2	9	6	5	1	7	8
1	7	8	2	2	8	9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정시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 대기업보다 전문직 택했다

최상위권 수험생 선택기준 변화
산업 변동성 등 영향... 안정성 중시
종로학원 "이탈현상 더 늘어날 것"

〈연세대·고려대 대기업계약학과 정시 등록포기 상황〉

/종로학원

대학	학과명	계약기업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	등록포기	비율	모집	등록포기	비율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25	42	168%	32	62	193.8%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LG디스플레이	7	3	42.9%	7	6	85.7%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현대자동차	20	26	130%	21	27	128.6%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10	21	210%	15	37	246.7%
	차세대통신학과	삼성전자	10	11	110%	10	12	120%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이 큰 폭으로 늘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대기업 취업 안정성'에서 '대학 브랜드와 의 학계열 안정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3명보다 41명(39.8%) 증가한 수치다. 두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정원은 85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등록포기 비율은 169.4%에 달했다. 전년 143.1%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은 68명으로 전년보다 23명(51.1%) 늘었고, 고려대는 76명으로 18명(31.0%)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에서 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보다 21명(39.6%) 늘었으며,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37명으로 16명(76.2%)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현대자동차 계약

학과는 27명으로 1명(3.8%) 늘어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는 6명으로 3명(100%) 증가했다. 모집정원 대비 이탈 규모도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15명 모집에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246.7%에 달했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42명 모집에 74명으로 176.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128.6%, LG디스플레이는 85.7%였다. 정시 최조합격자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합격자들 역시 중복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종로학원은 연고대 계약학과가 정시 가군에서 선발되는 구조상, 나군 서울대 이공계나 나·다군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의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영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

험생들의 최종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공계로 이동한 경우에는 특정 기업 취업 보장보다 대학 브랜드 가치를 우선시한 선택으로, 의학학계열로 이동한 경우에는 산업 경기 변동성보다 전문직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나온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의학계열 진입 경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 계약학과와의 중복합격 및 이탈 현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에서는 졸업 이후 특정 산업에 묶이는 안정성보다, 진로 선택의 폭과 전문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지원 강화

2026학년도 운영계획 수립
학교당 운영비 1억 내외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관련 예산 지원과 교원 추가 배치 및 공동·온라인 교육과정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과도기를 마무리하고 일 반계고 현장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이다.

먼저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채용 예산을 학교당 2200만원 내외로 편성했다.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사회·과학 교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다양화도 확대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공유 캠퍼스 21곳 56개교, 거점학교 10개 영역 5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서울온라인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에는 109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2025학년도 1학기 61개 강좌 대비 79% 늘어난 규모다. 학점 이수제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지원 자료와 학점이수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한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도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연계 운영하고,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게는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를 새롭게 지원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지원도 확대된다. 학점 취득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을 통한 학점 이수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에서는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를 추가 운영해 미이수 학생들에게 추가 학점 이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내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수원시 슬로건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은 수원 방문의 해 로고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산하기관, 관광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이 기수로 참여해 방문의 해 출범을 알린다. 이어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수원 방문의 해 추진 배경과 주요 전략,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사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다. 이후 자매도시 축하영상 상영과 공감토크, 수원 방문의 해 개막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되며, 케이티(kt) 위즈 응원단의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감토크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조성'을 주제로, 관광 약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

는 수원의 관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을 맞은 2026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이 되는 2027년을 계기로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로, 2026년 1400만 명, 2027년 150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관광 콘텐츠 및 역량 강화 ▲메가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행사·이벤트 운영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 상품 개발 등 6대 전략을 설정하고, 연차별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은 역사와 문화, 시민의 일상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무주택 실수요 가구, 대출규제로 자금 부담 커져"

자금조달 여력 6000만원~1억 감소

서울 지역 무주택 실수요 가구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에 해당하는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주거 이동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의 47.1%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 조달 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2 | 해질 / 18:19

2월 23일(월) 음력: 1월 7일

수도권 날씨: -2 ~ 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 산케이, '다케시마 날' 맞아 또 도발... "일본 고유 영토"
▲이란 테헤란 등 곳곳서 반정부 시위 재점화... 대학생들 거리로. /사진 뉴스시스

▲美정보당국 "中, '다탄두미사일' 등 차세대 핵 무기 개발 목적 실험"
▲베네수엘라 사면신청 정치범 1600명 달해... "신청서 처리 중"

▲독일·프랑스 "트럼프 관세, EU 차원 대응해야"... 무역바주카포 가능성도
▲인류 50여년만에 달로?... "아르테미스 2호, 헬륨 문제에 3월 발사 연기"



외식업계
구조적 비용 상승에
가격인상 움직임
L1



Life

K-뷰티
디바이스 기술
주도권 경쟁
L2



10여년 스토리게임 외길... “뜻뜻함 넘어 공감으로 승부”



새벽을 여는 사람들

테일즈샵 한 준 대표

비주얼노벨과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팬들에게 ‘테일즈샵’은 익숙한 이름이다. 모바일 마켓 초창기 불법 복제 피해를 겪었고,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콘솔 버전을 출시하며 플랫폼 확장에 나섰다. 이후 ‘기적의 분식집’, ‘썸썸 편의점’, ‘랜덤채팅의 그녀’ 등을 통해 10년 넘게 스토리 게임을 제작해왔다.

최근에는 스토브와 협업하며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준 테일즈샵 대표는 최근 신작 ‘사랑한 잔 말아주세요!’를 선보였다. 장르를 ‘현대 무협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다. 무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바텐더로 살아가는 청년의 사랑과 성장을 다룬다.

그는 “테일즈샵이 개발하고 발매한 신작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며 “무협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의 젊은이가 바텐더를 하며 연애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히로인은 두 명이다.

이번 작품에는 카테일 바를 경영하는 미니게임이 포함됐다. 그는 과거의 아쉬움부터 언급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그동안 우리 미니게임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 타임을 줄였다. 리듬을 끊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지루함을 없애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무협과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의 조합은 낯설다. 그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르는 아니었다. 하지만 PD와 작가의 의지가 강했다. 그 선택을 믿고 밀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색다른 작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연애의 결 역시 달라졌다. 그는 “기존 서브컬처 연애는 ‘보이 미츠걸’ 문법이었다. 뜻뜻함이 중심이었다”며 “하지만 플레이 연령대가 올라갔다.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인공을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설정했다. 그는 “성인이라고 하면 대학생 혹은 직장인이다. 이들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바’라는 공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바는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킬 수 있는 장치다. “각테일은 이름과 색, 디자인이 다양하다.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다. 건전한 성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에도 적합했다.”

이용자를 설레게 할 장치도 보강했다. 그는 “스파인 애니메이션을 새로 도입했



한준 테일즈샵 대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무협 세계관 조화한 신작게임 선보

높아진 게임 연령대에 공감대 형성 스파인 애니메이션 도입, 전달력↑

어려운 환경 속, 스토브와 협업 선택 현지화·론칭 등 해외진출 지원받아

플레이타임 줄이고 감정 밀도 높여 공감에 참신함 더한 작품 만들어야

다. 케로의 그림과 연출이 맞물리면서 감정 전달력이 높아졌다”며 “움직이는 케로의 그림 자체가 설렘 포인트”라고 말했다. 단순히 그림이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선에 맞춰 미묘한 표정과 동작을 구현해 몰입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히로인 두 명 외 추가 공략 캐릭터는 없다. 다만 올해 중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로 히로인 한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DLC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성인의 연애를 다뤄보고 싶다. 극내항 하키코모리 히로인이나 오타쿠 히로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즌패스도 준비 중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은 냉정했다. 그는 “2014년 ‘방구석에 인어아가씨’를 출시할 때는 모바일 시장에 프론티어적 분위기가 있었다. 유료 게임에 대한 수요도 존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19년 ‘기적의 분식집’, 2020년 ‘썸썸 편의점’을 출시할 때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독특했다. 게임수 자체가 지금보다 적었기에 알릴 기회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스팀에는 매일같이 신작이 쏟아진다. 존재를 각인시키기 쉽지 않다. 여가 시간의 경쟁 상대도 게임만이 아니다. OTT와 유튜브가 함께 경쟁한다. 직접 알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스토브와 협업을 선택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진출이었다”며 “‘사니양 연구실’의 중국 현지화와 론칭, 전시회 소개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과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니양 연구실’은 스토브 출시 이후 중국 팬이 생겼다. 후속 DLC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도 받는다”며 “아직 시작 단계지만,

지난 10년간 시도해온 해외 진출 가운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신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에서 가장 큰 장벽은 번역이다. 그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은 텍스트 양이 많다. 번역 결과물이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결이 맞는 번역자를 찾기 힘들고 비용도 커진다”고 토로했다. 다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번체 버전 대응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가 스토리 게임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 대표는 “이야기가 좋아서 창업했다. 작가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작가가 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는 ‘투하트’를 꼽았다. 그는 “게임의 형태로 스토리를 풀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느꼈다. 큰 충격이었다”고 회상했다. 영화 ‘쥬라기 공원’, 애니메이션 ‘오 나의 여신님’, ‘담마 1/2’ 역시 이야기의 힘을 체감하게 만든 작품이다.

처음에는 직접 소설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잘 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만화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마찬가지로였다. 대신 그는 “글을 보는 눈, 그림을 보는 눈이 생겼다”며 “그 감각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 게임에서의 참신함에 대해 그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공감 없는 참신함은 과작이 된다. 반대로 공감 위에 솟은 참신함은 세대의 마스터피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선 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을 묻자 그는 ‘서브서브컬처’라는 표현을 꺼냈다. 그는 “현재 서브컬처는 변질됐다. 거대 기업들이 ‘우리 게임은 서브컬처’라고 말한다. 원래 특색이었던 시장에 대자본이 들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서브컬처 문법대로 만들면 대자본과 정면 경쟁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 진정한 서브컬처 정신은 메인의 틈새를 찌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서브의 서브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가법고 짧지만 놀랍고 신기한 게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아이디어를 확보했고,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플레이 타임은 줄이되 감정의 밀도는 높이는 구조를 실험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유저들의 사랑 덕분에 또 한 해 생존했다”며 “올해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테일즈샵이 개발한 게임.

메트로 한줄뉴스



▲‘손메대전’ 성사...손흥민·메시, MLS 개막전 나란히 선발
▲8년 만에 갈라쇼 초대된 한국...K팝으로 꾸민 차준환·이해인 /사진 뉴시스

▲농구대표팀 ‘마줄스호’ 첫 출항...대만·일본 상대 연습 도전
▲김혜성, MLB 첫 시범경기서 3타수 2안타 3타점 맹타

▲두손갤러리, 27일 ‘케데헌의 고향-답십리 엔틱 야시장’ 행사
▲성북구, 100년 숨어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 찾아